

한국판 지속 유대 척도의 타당화*

김 계 양 박 종 원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지속 유대 척도(Continuing Bonds Scale: CB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판 지속 유대 척도(이하 K-CBS)의 요인구조,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 가족을 포함하여 친밀관계에 있던 사람과 사별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293명)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0개 문항의 단일 요인 구조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52.59%를 설명하였다. K-CBS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양호하였다. 연구 2에서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표본(20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추정치는 모두 적절하였지만 다중상관자승치가 .40 미만인 한 문항이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고 9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9문항 단일 요인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보면, K-CBS는 애도반응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우울과도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애도반응을 통제했을 때, K-CBS는 오히려 우울감소를 예측하였다. 외상 후 성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울러 K-CBS 점수는 사별 대상과 상실 예상 여부에 따른 집단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CBS가 지속 유대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속 유대, 사별, 애도, 신뢰도, 타당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4196).

† 교신저자 : 김완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 031-219-2769, E-mail : wsgim@ajou.ac.kr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다. 이러한 상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성인기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Baltes & Carstensen, 1996; Boerner & Heckhausen, 2003). 사별 대처와 관련하여 건강한 적응을 위해 고인을 떠나보낸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고인이 된 애착 인물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Boerner & Heckhausen, 2003). 사별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 후 지속적인 애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지속 유대(continuing bonds)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별한 개인이 고인과 지속적인 내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된다(Stroebe & Schut, 2005, p. 477).

전통적으로 지속 유대는 적응적이지 못한 애도 반응으로 간주되었으며, 적응의 중요한 요소로 고인과의 애착 철회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Freud(1917)의 고전적 저작 “애도와 멜랑콜리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Freud는 여기서 애도 작업(work of mourning)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랑하는 대상에 투자했던 모든 리비도-정신적 에너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본능적 만족의 대상인 고인에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소망과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 간의 불일치를 되풀이하여 직면하는 혼숙 과정을 수반한다. 그러한 좌절된 시도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사별한 사람은 점차 고인이 더 이상 본능적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결국 잃어버린 대상에게서 리

비도를 거두어들여 새로운 대상에게 재투자하면서 애도작업이 완수된다(Field, 2008). 많은 사별 이론가들(Kim & Jacobs, 1991; Raphael, 1983; Sanders, 1989; Volkan, 1981)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였으며, 고인과의 유대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병리와 연관 지었다. 그 결과 애착을 철회하는 것은 애도 치료의 주된 목적이 되었다(예: Worden, 1982)¹⁾.

하지만 이러한 지배적인 견해는 이후 도전받기 시작했으며, 사별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고인과 계속해서 정서적 애착을 유지하고, 그러한 유대가 보편적 애도 반응의 한 요소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Shuchter와 Zisook(1993)은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들에게 대한 경험 연구에서 상실 후 13개월에 63%가 때로 ‘그들의 배우자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47%는 ‘배우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49%는 ‘나 자신이 배우자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을 발견 한다’고, 65%는 ‘배우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고인에 대한 애착을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일 뿐 아니라 적응에 필수적이라는 대안적 관점이 나오기 시작했다(Hagman, 1995, 2001; Klass, Silverman, & Nickman, 1996; Klass & Walter, 2001; Silverman, Nickman, & Worden, 1992). 지금까지 지속 유대에 대해 가장 폭넓게 다루면서 그것의 건강한 적응 기능을 주장한 것은 Klass와 Silverman, Nickman(1996)이 편집한 “*Continuing bonds: New understandings of grief*”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 Worden(2003)은 이후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3판에서 초판의 이러한 유대 철회 관점을 바꾸어 고인과의 지속 유대를 애도 과정의 일부로 제안했다.

역사, 비교문화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사별한 사람들이 고인과의 애착을 유지하는 방식을 검토하면서 지속 유대는 사별한 개인에게 상실과 그 상실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주고 위안과 지지를 제공하며 삶에 의미를 부여해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Klass 등(1996)의 질적 접근은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지속 유대가 적응향을 가져온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Boerner & Heckhausen, 2003; Stroebe & Schut, 2005). 아울러 지속 유대가 적응 기능만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취급을 해버리면서 부적응을 가져오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Field, 2008; Field, Gao, & Paderna, 2005; Fraley & Shaver, 1999; Stroebe & Schut, 2005; Wortman & Silver, 2001).

지속 유대의 적응성과 관련하여 논의의 핵심은 고인과의 관계 속성에 있어서 변형(trans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다(Boerner & Heckhausen, 2003; Field, 2008; Gaines, 1997; Hagman, 1995, 2001; Shuchter & Zisook, 1993; Stroebe & Schut, 2005). 애착 이론 관점에서 이러한 변형은 Bowlby(1980)가 성인의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제시한 재조직화(reorganization)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Bowlby에 따르면 애착인물이 사라지면 선천적인 동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개인은 애착인물을 찾고 그 인물의 물리적 근접성과 돌봄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면 사별한 개인은 깊은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고인에 대한 애착 도식은 고인이 없는 현실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Fraley & Shaver, 1999). 이러한 재조직화 과정은 두 가지 심리적 과제를 수반하는

데, 하나는 애착 대상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애착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인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애착을 유지하면서 잃어버린 관계를 새로운 현실에 통합하는 것이다(Mikulincer & Shaver, 2008). Bowlby 이론과 유사하게 Rando(1993)는 애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조절 단계의 특징을 고인 없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고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달시키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결국 지속 유대의 적응성은 고인의 물리적 현존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고인이 된 애착 인물의 표상에 기반한 유대를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최근에 지속 유대의 적응 기능을 검토하는 경험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Boelen, Stroebe, Schut, & Zijerveld, 2006; Bonanno, Notarius, Gunzerath, Keltner, & Horowitz, 1998; Currier, Irish, Neimeyer, & Foster, 2015; Field & Filanovsky, 2010; Field & Friedrichs, 2004; Field, Gal-Oz, & Bonanno, 2003; Field, Nichols, Holen, & Horowitz, 1999; Neimeyer, Baldwin, & Gillies, 2006; M. Stroebe, Abakoumkin, Stroebe, & Schut, 2012). 그러나 경험 연구의 결과는 지속 유대가 사별 적응에서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Currier et al., 2015; Root & Exline, 2014). 예를 들면, Field와 Nichols, Holen, Horowitz(1999)의 연구에서는 지속 유대와 배우자 사별 적응의 관계가 지속 유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고인과 애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인의 소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더 큰 고통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고, 시간 경과에 따른 증상 감소를 덜 보였다. 반면 좋은 기억과 현존감을 통한 애착 유지는 증상 심각도와 상관성이 없어서 지속적 애착이 적응

적인지 아닌지는 지속 유대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Boelen과 Stroebe, Schut, Zijerveld(2006)의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지는 않았다. Field와 Gal-Oz, Bonanno(2003)는 지속 유대가 사별 후 5년 시점에 애도 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지속 유대 표현의 유형과는 관계가 없음²⁾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우자 사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 유대의 정서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록 사별 후기에는 지속 유대가 좀 더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되지만 사별 초기에는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eld & Friedrichs, 2004). Neimeyer와 Baldwin, Gillies(2006)의 연구에서는 지속 유대 수준이 높은 것은 복합 애도 증상 증가와 관련이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의미형성(meaning making)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eld와 Filanosky(2010)는 지속 유대를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외현적 지속 유대는 복합 애도의 위험 요인들 및 부적응 지표인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내재적 지속 유

대는 개인성장과 같은 적응 지표와 복합애도 증상 같은 부적응 지표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 Currier와 Irish, Neimeyer, Foster(2015)는 지속 유대 수준이 높은 것과 복합애도 증상 증가의 관련성을 보여줌으로써 Neimeyer 등(2006)의 연구 결과를 반복검증 하였으며, 더불어 개인 애착 양식이 고인에 대한 지속 유대 적응성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들은 지속 유대가 사별 고통을 완화한다는 기존의 주장(Klass et al., 1996)에 다소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고인과의 계속되는 관계 유지가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 다양한 조절변수가 개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의 경험 연구들에서 사용된 지속 유대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Field 등(1999)은 지속 유대를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애도 면접 문항(Horowitz et al., 1997)에서 지속 유대와 관련된 4문항(고인의 현존감, 고인의 소지품 간직, 고인의 소지품 접촉을 통한 위안 추구, 기억을 통한 위안 얻기)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oelen 등(2006)도 ‘현존’, ‘소지품’, ‘기억’으로 명명되는 3문항짜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Field와 Friedrichs(2004)는 상실 관련 정서를 다루기 위한 대처방식으로서의 지속 유대 표현에 관한 6문항짜리 척도를 개발했는데, 이 도구들은 모두 요인구조 확인을 비롯한 척도 타당화 과정 없이 사용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고인이 된 애착 인물과의 심리적 유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는 Field와 Gal-Oz, Bonanno(2003)가 고안한 지속 유대 척도(Continuing Bonds Scale: CBS)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Field 등

2) 지속 유대 표현 유형과 관련하여 이러한 불일치하는 결과는 아마도 문항 진술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소지품 사용 문항 관련하여 Field 등(1999)의 연구에서는 “고인의 방을 고인이 원했던 그대로 유지하거나 고인이 쓰던 물건(옷이나 가구)을 예전 그대로 두고 있는지”, “고인이 곁에 있다고 느끼기 위해, 혹은 위로를 얻거나 털 외롭기 위해 고인의 특별한 물건을 사용하는지”와 같이 집착에 가깝고 더 강박적이며 감각 기반의 구체적인 형태를 띠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Field 등(2003)에 사용된 지속 유대 척도 소지품 관련 문항은 “고인을 생각나게 하는 고인의 물건이나 그 삶과 관련된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와 같이 소지품이 고인을 추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다.

(1999)의 연구를 확장하여 기존 연구 참여자 89명 중에서 상실 후 5년 추수 연구 참여에 동의한 39명의 배우자 사별 집단(남성: 13명,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지속 유대 표현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에서 CBS를 제안하였다. CBS의 문항은 지속 유대 표현에 대한 기존 사별 연구 문헌(Klass et al., 1996; Parkes, 1998; Shuchter & Zisook, 1993)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총 11문항으로 고인과의 유대를 지속하는 여러 가지 방식, 즉 기억(좋았던 기억), 소지품 보관(기억을 떠올리는 물건 간직하기), 현존감(사랑의 현존으로서의 고인), 고인과의 동일시(고인의 습관, 가치, 관심을 취하기), 고인의 유산(사별한 사람에 대한 고인의 긍정적인 영향), 기준으로서의 고인(고인의 소망 이루기, 의사결정에서 고인의 관점 따르기), 추억담(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인을 회상하기)을 기술한다. 척도는 고인이 된 배우자에 관하여 어느 정도로 그러한지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Pearson 상관 분석 결과, 상실 5년 후에 지속 유대 수준은 애도 증상과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속 유대 문항의 표현 유형과는 관계가 없었다. 다른 한편 CBS와 우울 및 심리정서적 증상 척도와 의 정적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Field 등(2003)은 CBS의 요인구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이후 Neimeyer 등(2006)이 사별한지 2년 이내인 50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속 유대와 의미 재구성, 복합애도 증상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에서 주축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CBS가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높은 지속 유대 수준은 복합 애

도 증상 증가를 예측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상실에 관한 의미 형성이 낮은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이후 Field와 Filanosky(2010)는 외현적 지속 유대와 내재적 지속 유대, 2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제안한 바 있다. 외현적 지속 유대는 애착 인물과의 영속적 분리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인과의 물리적 근접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반면, 내재적 지속 유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오히려 고인의 정신적 표상을 수반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문항들이 각 하위 요인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외현적 지속 유대 문항은 고인에 대한 착각과 환각에만 국한되는데, 원저자가 척도의 한계점으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착각과 환각은 그 자체로 복합애도의 요소일 수 있다. 또한 내재적 지속 유대 문항도 고인을 역할모델이나 의사결정의 참조점으로 삼는 것으로 제한시켜 Field 등(2003)의 CBS가 담고 있는 좋은 추억, 현존감 등의 문항들이 제외되었다. CBS는 현재까지 경험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고, 대체로 고인의 정신적 표상에 기반한 지속 유대 표현을 다른 척도들과 비교하여 포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 쓸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지속 유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념도 다소 생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 세월호 재난 사건과 급격히 증가하는 자살 등으로 인해 남겨진 사람의 애도와 건강한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지속 유대는 사별에 대한 적응의 중요한 차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따라서 지속 유대와 사별 후 건강한 적응 및 부적응

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속 유대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인과의 지속 유대를 측정하는 CBS를 번안하여 사별 경험이 있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판 지속 유대 척도(K-CB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1. 한국판 지속 유대 척도(K-CBS)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방 법

연구대상

가족을 포함하여 친밀관계에 있던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을 사별한 경험이 있는 성인 293명(남성 93명, 여성 200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남성이 39.05세($SD=17.84$), 여성이 40.62세($SD=17.18$)였다. 그 밖의 연구대상자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절차

문항번안

Field와 Gal-Oz, Bonanno(2003)가 고안한 지속 유대 척도(Continuing Bonds Scale: CBS)를 본 연구의 제1저자와 제2저자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각 문항별로 네 가지 대안의 번안문을 가진 1차 번안 목록을 만들었다. 원척도 문항의 '배우자'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별집단에 적용하기 위해 '고인'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완성된 1차 번안 목록을 심리학 박사 5인,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이중 언어사용자 1인에

표 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위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 ($N=293$)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93 (31.7)
	여성	200 (68.3)
연령	20세 이하	34 (11.6)
	21~30세	88 (30.0)
	31~40세	35 (11.9)
	41~50세	34 (11.6)
	51~60세	61 (20.8)
	61세 이상	41 (14.0)
사별 대상	조부모	85 (29.0)
	부모	80 (27.3)
	자녀	4 (1.4)
	형제	15 (5.1)
	배우자	18 (6.1)
	기타(친척, 친구, 직장동료)	88 (30.1)
고인의 성별	무응답	3 (1.0)
	남성	160 (54.6)
	여성	128 (43.7)
고인의 사망원인	무응답	5 (1.7)
	질병	138 (47.6)
	사고	30 (10.3)
	자살	34 (11.7)
	타살	3 (1.0)
	노환	71 (24.5)
	기타	14 (4.8)
	무응답	3 (1.0)
사별 기간	6개월 미만	30 (10.2)
	1년 미만	38 (13.0)
	3년 미만	122 (41.6)
	6년 미만	72 (24.6)
	6년 이상	27 (9.2)
	무응답	4 (1.4)

계 주고 원 문항을 기준으로 각 번역 문항에 대한 번역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5점 척도(1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 5점 '매우 적절하다')로 평정하게 하였고, 더 나은 표현을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다시 저자들이 검토하고 논의한 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질 문지를 실시하여 정확한 의미전달과 응답의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최종 한국판 지속 유대 척도(K-CBS)를 만들었다.

자료수집

연구 1의 자료 수집을 위해 일부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호스피스 센터 사별 가족 모임과 충청권 소재 사찰 49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부는 수도권 자살예방센터와 대학학생상담센터를 포함한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밖에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대학생과 그 가족 중 사별을 경험한 대상자를 모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나머지는 연구자들의 지인을 통해 대상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방식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그 결과 총 313부를 회수하여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20부를 제외하고 29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K-CB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문항-전체 상관과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검토하였다.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K-CB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총 11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Measure) 표본 적절성 측정치는 .917이고, Bartlett의 구형성(sphericity) 검증치는 1759.113($df=55$), $p<.001$ 로 분석될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factoring)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식을 적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값(eigenvalue) 1이상인 요인이 1개로 추출되었다. Scree 도표를 이용하여 고유값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완만해지는 지점을 고려했을 때도 1개 요인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적으로 요인부하량은 적정 범위 안에 있었으나 공통성이 .40이 안되는 3번 문항("나는 고인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을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총 10문항에 대해 다시 분석한 결과 1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 변량은 52.59%였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678~.773으로 나타났다(표 2).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전체 상관과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표 3). 문항-전체 상관은 .651~.734의 범위로 적절하였으며, 문항 삭제 시 내적 합치도가 향상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표 2. K-CBS의 탐색적 요인분석(Direct Oblimin) 결과

	문 항	M(SD)	요인 부하량	공통성
6	고인의 습관이나 가치관, 관심사의 많은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3.09 (1.20)	.773	.597
7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 고인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	3.30 (1.15)	.757	.573
9	내게 기쁨을 주는 애뜻한 추억들이 많이 있다.	3.37 (1.14)	.746	.556
8	나는 고인의 소망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한다.	2.95 (1.13)	.740	.547
10	나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고인이 어떻게 생각할 지를 떠올리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2.59 (1.14)	.724	.525
11	나는 고인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27 (1.14)	.722	.522
4	나는 마음의 위안이나 조언을 얻기 위해 고인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한다.	2.47 (1.21)	.705	.497
5	비록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고인을 계속 사랑한다.	3.73 (1.13)	.704	.495
2	나는 고인을 생각나게 하는 고인의 물건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	2.88 (1.31)	.699	.488
1	나는 고인을 떠올릴 만한 것들을 찾아본다.	2.79 (1.13)	.678	.460
Eigenvalue			5.259	

표 3. K-CBS의 신뢰도

	문 항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6	고인의 습관이나 가치관, 관심사의 많은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734	.906
7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 고인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	.718	.907
9	내게 기쁨을 주는 애뜻한 추억들이 많이 있다.	.708	.907
8	나는 고인의 소망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한다.	.703	.907
10	나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고인이 어떻게 생각할 지를 떠올리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689	.908
11	나는 고인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692	.908
4	나는 마음의 위안이나 조언을 얻기 위해 고인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한다.	.675	.909
5	비록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고인을 계속 사랑한다.	.669	.909
2	나는 고인을 생각나게 하는 고인의 물건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	.669	.910
1	나는 고인을 떠올릴 만한 것들을 찾아본다.	.651	.910

**연구 2. 한국판 지속 유대 척도
(K-CBS)의 타당도**

방 법

연구대상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2차 표본 역시 가족을 포함하여 친밀관계에 있던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을 사별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0명(남성: 55명, 여성 14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38.29세($SD=18.24$), 여성이 45.26세($SD=17.13$)였다. 그 밖의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4 제시하였다.

절차

연구 2의 자료 수집을 위해 일부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호스피스 센터 사별 가족 모임과 수도권 소재 천주교회 위령미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부는 수도권 자살예방센터와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수집하였으며, 그 밖에 수도권 소재 대학생과 그 가족 중 사별을 경험한 대상자를 모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나머지는 연구자들의 지인을 통해 대상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방식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그 결과 총 230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30부를 제외한 2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 ($N=200$)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55 (27.5)
	여성	145 (72.5)
연령	20세 이하	23 (11.5)
	21~30세	42 (21.0)
	31~40세	21 (10.5)
	41~50세	28 (14.0)
	51~60세	52 (26.0)
	61세 이상	34 (17.0)
사별대상	조부모	39 (19.5)
	부모	67 (33.5)
	자녀	5 (2.5)
	형제	11 (5.5)
	배우자	34 (17.0)
	기타(친척, 친구, 직장동료)	44 (22.0)
고인의 성별	남성	116 (58.0)
	여성	84 (42.0)
고인의 사망원인	질병	128 (64.0)
	사고	16 (8.0)
	자살	13 (6.5)
	타살	0 (0.0)
	노환	35 (17.5)
	기타	8 (4.0)
사별 기간	6개월 미만	35 (17.5)
	1년 미만	43 (21.5)
	3년 미만	49 (24.5)
	6년 미만	46 (23.0)
	6년 이상	24 (12.0)
	무응답	3 (1.5)

측정도구

한국판 지속 유대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원척도 11문항에서 한 문항이 제외된 총 10문항짜리 척도를 사용하였다.

애도 반응 척도

Faschingbauer와 Zisook, Devaul(1987)이 개발한 Texas Revised Inventory of Grief(TRIG)를 안영란(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 관련하여 현재의 정서, 인지 및 행동 반응을 평가하는 13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죽음 수용의 어려움, 계속되는 정서적 고통, 고인에 관한 집착, 반추 등을 기술한다. TRIG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는 안영란(2006)의 연구에서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Radloff(1977)가 고안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을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타당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로 19문항, 4개 하위 요인(우울 정서, 긍정적 정서, 대인적 실패감, 신체적 저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 다. 전경구와 이민규(199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 척도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PTGI)를 송승훈과 이홍석, 박

준호, 김교현(2009)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그러한 외상과 투쟁하면서 얻어진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로 16문항, 4요인(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연구 1에서 살펴본 K-CBS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K-CBS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K-CBS로 측정된 지속 유대가 성별, 사별대상, 사별기간 및 상실 예상여부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 변량분석,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상관분석과 차이검증은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른 K-CBS 단일 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본($N=200$)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0개 문항에 대한 표준화 회귀계수 추정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와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를 검토한 결과,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 추정치는 .50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고 $p < .001$

표 5. K-CBS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및 다중상관자승치

문항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다중상관자승치(R ²)
11	1.000	.704			.496
10	1.018	.722	.105	9.680***	.521
9	1.028	.789	.097	10.560***	.623
8	1.087	.771	.105	10.318***	.594
7	.988	.772	.096	10.334***	.596
6	1.112	.825	.101	11.013***	.680
5	.992	.776	.096	10.386***	.602
4	1.015	.695	.109	9.333***	.483
2	1.071	.724	.110	9.711***	.524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잠재변수가 측정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는 문항 1번(“나는 고인을 떠올릴 만한 것들을 찾아본다.”)의 경우 .37로 .40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이 문항을 제거하고 총 9문항에 대하여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들의 표준화 회귀계수 추정치와 다중상관자승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CFI와 여기에 더해 간명성을 고려한 TLI 두 가지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CFI = .929, TLI = .905로 둘 다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으며(홍세희, 2000 참고), 아울러 절대적 적합도 지수³⁾의 하나인

3) 본 연구에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119로 나쁘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는 RMSEA가 모형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RMSEA는 상대적으로 적은 변수와 요인을 가진 작은 모형의 경우 자유도가 너무 작아져 그 값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제한

SRMR = .052로 .08보다 작아 역시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이러한 9문항으로 이루어진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10문항일 때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중상관자승치가 낮은 1번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를 구한 결과 .92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0문항의 내적합치도와 동일했다. 이는 문항수가 한 문항 줄었지만 내적합치도는 줄어들지 않아 더 간명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점이 있다(홍세희, 2000; Breikvik & Olsson, 2001; Kline, 2011). 이러한 경우의 적합도 평가와 관련하여 홍세희(2000)는 RMSEA값은 나쁜 적합도(RMSEA>.10)를 보이는 반면, CFI와 TLI는 좋은 적합도(CFI, TLI>.90)를 보인다면, RMSEA값이 적은 변수의 수에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CFI와 TLI 중심으로 적합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표 6. K-CBS의 단일 요인 모형 적합도

	χ^2	<i>df</i>	TLI	CFI	SRMR
1요인(9문항)	103.577	27	.905	.929	.052
1요인(10문항)	139.599	35	.887	.912	.057

주.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SRMR =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K-CBS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K-CBS와 부적응 관련 척도인 애도반응(TRIG) 및 우울(CES-D)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 유대는 애도반응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66, p<.01$. 우울 척도 전체 평균과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20, p<.01$, 하위 요인별 상관관계는 우울정서 요인, $r=.24, p<.01$, 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지속 유대와 건 강한 적응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외상 후 성장척도(PTGI)와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4개 하위요인인 자기지각의 변화, $r=.38, p<.01$,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r=.36, p<.01$,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r=.41, p<.01$,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r=.56, p<.01$, 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지속 유대 척도와 애도반응 척도인 TRIG와의 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두 척도가 같은 속성을 측정할지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유대와 애도반응이 각각 우울과 외상 후 성장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애도반응을 통제된 뒤에 지속 유대가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속 유대는 애도반응 설명량($R^2=.233$)에 비해

약 2.6%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ta R^2=.026, p<.01$, 또한 애도 반응은 우울에 정적으로, $\beta = .624, p<.001$, 지속 유대는 부적으로, $\beta = -.214, p<.001$,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34.40, p<.001$. 다음, 상관계수로 보아 지속 유대와 외상 후 성장의 상관이 애도반응과 외상 후 성장의 상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지속 유대를 통제하고 애도반응이 외상 후 성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애도 반응의 추가적인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Delta R^2=.001, ns, \beta = .044, ns$.

K-CBS의 성별과 사별대상, 사별기간, 상실 예상 여부에 따른 차이

K-CBS 점수가 성별, 사별대상, 사별기간 및 상실 예상 여부에 따라 다른지 검토하였다. 먼저 남성($M=3.04, SD=0.97$)과 여성($M=3.26, SD=0.98$)의 지속 유대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198) = -1.46, p=.147$. 사별 대상에 따른 차이는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어서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chi^2(5) = 59.95, p<.001$ (표 8), 사후 분석을 위하여 종속 변수인 지속 유대에 순위변수를 생성한 후

표 7. K-CBS와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

	1	2	3	3-1	3-2	3-3	3-4	4	4-1	4-2	4-3	4-4
1. 지속 유대	-											
2. 애도반응	.66**	-										
3. 우울	.20**	.48**	-									
3-1. 우울정서	.24**	.50**	.94**	-								
3-2. 긍정적정서 ^a	.08	.29**	.55**	.34**	-							
3-3. 대인적실패감	.11	.30**	.84**	.76**	.19**	-						
3-4. 신체적저하	.11	.34**	.66**	.57**	.25**	.48**	-					
4. 외상후 성장	.46**	.33**	-.15*	-.07	-.23**	-.11	-.14*	-				
4-1. 자가지각	.38**	.24**	-.23**	-.15*	-.28**	-.17*	-.15*	.93**	-			
4-2. 대인관계	.36**	.28**	-.18*	-.10	-.24**	-.11	-.16*	.92**	.80**	-		
4-3. 새로운가능성	.41**	.30**	-.03	.04	-.12	-.01	-.13	.81**	.68**	.69**	-	
4-4. 영적관심	.56**	.45**	.09	.11	.06	.01	.09	.70**	.59**	.57**	.46**	-
평균	3.20	2.79	1.96	1.88	2.89	1.52	1.71	3.67	3.74	3.69	3.52	3.64
표준편차	0.98	0.94	0.52	0.72	0.71	0.54	0.68	1.03	1.06	1.18	1.19	1.59

^a 긍정적 정서가 낮음을 나타냄

* $p < .05$, ** $p < .01$

표 8. K-CBS의 사별대상에 따른 차이

사별대상	평균 순위	χ^2
조부모	70.96	59.95***
부모	120.96	
자녀	173.30	
형제	95.86	
배우자	136.04	
기타(친척, 친구, 직장동료)	60.95	

*** $p < .001$

Tukey 방법을 적용하였다. 결과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를 사별한 집단이 조부모나 기타(친

척, 친구 등) 관계 사별집단에 비해 순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자녀를 사별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 배우자 사별 집단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별 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사별 경과시간이 증가할수록 지속 유대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성이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F(3, 193) = 2.11, p=.100$. 추가적으로 상실의 예상 여부⁴⁾에 따른 지속 유대 점수의 차이를

4) “상실을 예상한 것은 고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1주일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를 ‘예상

표 9. K-CBS의 상실 예상 여부에 따른 차이

상실 예상 여부	평균(표준편차)	t
예상치 못한 상실	3.00 (1.01)	-3.45**
예상한 상실	3.47 (0.87)	

** $p < .01$

검토한 결과(표 9), 예상한 상실 집단($M=3.47$, $SD=0.87$)이 예상치 못한 상실 집단($M=3.00$, $SD=1.01$)보다 지속 유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92) = -3.45$, $p=.001$.

논 의

본 연구는 Field 등(2003)이 개발한 지속 유대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가족을 포함하여 친밀관계에 있던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을 사별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K-CB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와 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사별 경험이 있는 성인 293명을 대상으로 K-CBS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Field 등(2003)이 제안한 CBS의 1요인 구조를 확인한 Neimeyer 등(2006) 연구와 동일하게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원척도의 11문항에서 공통성이 낮은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0개 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을 보면 .50을 상회하면서 각 문항들이 요인과 높게 관련됨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

치 못한 상실이라고 하고, 1주일 이상은 '예상한 상실'이라고 명명하였다. 예상치 못한 상실은 105명(52.5%), 예상한 상실은 89명(44.5%)으로 나타났다(무응답 제외).

치도를 확인한 결과 .92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 K-CBS가 고인과의 지속 유대를 측정하기에 신뢰로운 척도임을 시사한다.

연구 2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K-CBS 단일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표본 20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K-CBS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분석과 K-CBS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함으로써 K-CBS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화 회귀계수 추정치와 다중상관자승치를 검토한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추정치는 모두 .50을 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나 다중상관자승치가 .40 미만인 한 문항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한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적 적합도 지수 중 표본 크기에 영향을 덜 받고 간명성을 고려한 CFI와 TLI,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SRMR을 평가한 결과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Field 등(2003)은 사전에 CB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고, 이후 Neimeyer 등(2006)이 506명의 표본을 가지고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해서 단일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지만 여기서도 확인적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구조가 다른 표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원척도 연구에 비해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K-CBS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먼저 증상 반응이라 할 수 있는 애도 반응 척도(TRIG) 및 우울 척도(CES-D)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K-CBS는 애도 반응 척도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우울과는 약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다른 한편, 건강한 적응 관련 지표인 외상 후 성장척도(PTGI)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지속 유대 척도가 애도 반응 척도와 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두 척도가 같은 속성을 측정할지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hur와 Stroebe, Boelen, Zijerveld(2006)는 TRIG가 측정하는 애도 반응과 CBS가 측정하는 지속 유대 구성 개념의 중복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 유대와 애도 반응이 각각 우울과 외상 후 성장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애도 반응을 통제된 뒤에 지속 유대는 우울을 약 2.6% 정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도 반응은 우울에 정적으로, 지속 유대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지속 유대를 통제했을 때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애도 반응의 추가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K-CBS와 TRIG의 상관이 높지만 두 척도가 동일한 현상을 측정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애도 반응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지속 유대는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 지속 유대가 부적응 반응을 예측하지만 애도 특정 반응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애도 반응으로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지속 유대는 오히려 우울 감소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증상의 감소는 사별 대처에서 성공적인 적응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증상의 감소를 넘어 긍정적인 변화나 개인 성장에 대한 강조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Field & Filanosky, 2010).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개인이 이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마땅히 그럴 것이라고 여긴 세상에 대한 가정이나 기대를 허물어뜨리는 사건이며, 따라서 사별

한 사람의 정체감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 된다(Parkes, 1993). 성장은 개인이 이러한 도전이 되는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다루어서 자기감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 삶의 새로운 의미와 영성을 체험할 때 일어난다(Calhoun & Tedeschi, 2001).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지속 유대가 단순한 증상 감소를 넘어 개인성장이라는 긍정적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 특성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 중 비교적 최근에 사별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고인이 생을 마감할 무렵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고인 사망 후 지지 모임 혹은 종교 활동을 통해 심리적 돌봄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받아 적응이 향상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을 받으려 올 만큼 이미 적응 상태가 좋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결과만으로 지속 유대가 적응적이라고 추론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사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후 잘 통제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별, 사별대상, 사별기간 및 상실 예상 여부에 따른 K-CBS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남녀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별대상에 따른 집단 차이는 Kruskal-Wallis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종속 변수인 지속 유대에 순위변수를 생성한 후 Tukey 방법을 통해 사후 검증한 결과, 부모나 자녀, 배우자를 사별한 집단이 조부모나 친척, 친구 등을 상실한 집단보다 지속 유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별 기간에 따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 유대의 완만한 감소 경향성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상실 예상 여부에 따른 K-CBS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상한 상실 집단이 예상치 못한 상실 집단에 비해 지속 유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상실의 예상성은 어느 정도는 사별 유형과 혼입되어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실은 주로 폭력적인 죽음(자살, 타살, 혹은 사고)과 연관되어 있다(Bonanno & Kaltman, 1999). 폭력적인 죽음으로 인한 상실이라면 고인에 대한 기억 자체는 고통스럽고 침습적일 것이다. 이러한 기억들은 지속 유대에서처럼 고인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그 밖에 위안을 얻고자 고인의 표상을 떠올리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Parkes, 2010). 또한 예상치 못한 상실은 사별한 사람 개인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해 어떤 내적 준비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하지만 예상한 상실은 이후 고인의 표상을 구성하기 위한 내면의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Boerner & Heckhausen,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실 집단의 유대 수준이 더 낮게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K-CBS는 신뢰도와 모형 적합도가 입증되고, 구성타당도가 확인된 타당한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지속 유대는 최근 국외의 사별, 애도 분야 이론가와 상담 및 임상가들이 애도과정의 고유한 현상으로, 사별에 대한 적응의 중요한 차원으로 주목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지속 유대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제안하여 그 속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로 지속 유대가 사별 대처에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지속 유대와 사별 대처에는 상당히 다양한 조절변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향

후에는 이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Field와 Friedrich(2004)는 배우자 사별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 유대가 사별 후기에는 긍정 정서와 정적 상관성이 있지만 사별 초기에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지속 유대의 효과성이 사별 기간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도의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지속 유대가 고인에 대한 위안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Stroebe & Schut, 2005). 또한 지속 유대의 적응성과 관련하여 개인차 변인으로 애착 양식이 검토될 수 있다(Currier et al., 2015; Field et al., 2005; Stroebe, Schut & Boerner, 2010). 불안-집착형 개인은 애착 대상과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커서 지속 유대를 집요하고 완강하게 하며 고인을 상징적으로 재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Field et al., 2005; Stroebe et al., 2010). 이에 반해 회피-무시형 개인들은 애착 욕구를 부정하고, 애착 관련 감정을 방어적으로 차단하여(Mikulincer & Shaver, 2008) 사별 대처에서 고인과의 지속 유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Field et al., 2005). 개인차 변인 외에도 K-CBS의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지속 유대와 적응 간의 관계에서 상실의 상황, 즉 상실의 예상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Stroebe et al., 2012). 이 밖에 사별한 사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도 지속 유대가 개인의 사별 대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아닐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개인의 애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Rosenblatt, 2001), 개인의 지속 유대 표현에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과의 지속 유대 경험을 수용하지 않

는 사회적 맥락이라면 사별한 개인에게 지속 유대 경험은 위안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Root & Exline, 2014).

지속 유대에 대한 타당화된 척도는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는데 기초를 마련해준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 연구들은 상담을 포함하여 사별 가족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지속 유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 특성과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고르게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질병으로 고인과 사별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으며 사고나 자살, 타살 등 폭력적인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만이 참여하였다. 사별 대상도 부모와 조부모, 친구 및 친척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자녀와 형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참가자 접촉에서 종교를 포함하여 심리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기관 이용자나 적응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한 접근이 더 용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사별 집단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추후에는 사고나 자살, 타살 등 폭력적인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녀 상실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애도 반응을 측정하는 TRIG는 사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 척도이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한점도 있다. 특히 일부 문항들(예, “때때로 고인을 매우 그리워한다.”)은 부적응

을 측정하지 않으며, 죄책감, 비통함, 일상 기능의 어려움과 같은 좀 더 부정적인 결과를 반영하는 문항들이 누락되어 있다(Neimeyer & Hogan, 2001). 또한 CBS와 TRIG 간의 개념 중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척도가 같은 개념을 측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TRIG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애도 반응 척도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 유대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횡단 조사를 통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인 사망 후부터 시간 변화에 따라 애도 강도 및 다른 적응 관련 척도를 반복 측정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 유대와 적응의 인과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의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안영란 (2006). 배우자 사별 여성을 위한 개별적 사별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검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ltes, M. M. & Carstensen, L. L. (1996). The process of successful ageing. *Ageing and Society*, 16(4), 397-422.

- Boelen, P., Stroebe, M., Schut, H., & Zijerveld, A. (2006). Continuing bonds and grief: A prospective analysis. *Death Studies, 30*, 767-776.
- Boerner, K. & Heckhausen, J. (2003). To have and have not: Adaptive bereavement by transforming mental ties to the deceased. *Death Studies, 27*, 199-226.
- Bonanno, G. A. & Kaltman, S. (1999). Toward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bereave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60-776.
- Bonanno, G. A., Notarius, C. I., Gunzerath, L., Keltner, D., & Horowitz, M. J. (1998). Interpersonal ambivalence, perceived relationship adjustment, and conjugal lo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6), 1012-1022.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1). Posttraumatic growth: The positive lessons of loss. In R. A. Neimeyer (Ed.),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pp. 157-17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urrier, J. M., Irish, J. E. F., Neimeyer, R. A., & Foster, J. D. (2015). Attachment, continuing bonds, and complicated grief following violent loss: Testing a moderated model. *Death Studies, 39*, 201-210.
- Field, N. P. (2008). Whether to relinquish or maintain a bond with the deceased. In M. S. Stroebe, R. O. Hansson, H. Schut, & W. Stroebe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 (pp. 113-1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ield, N. P. & Filanosky, C. (2010). Continuing bonds, risk factors for complicated grief, and adjustment to bereavement. *Death Studies, 34*, 1-29.
- Field, N. P. & Friedrichs, M. (2004). Continuing bonds in coping with the death of a husband. *Death Studies, 28*, 597-620.
- Field, N. P., Gal-Oz, E., & Bonanno, G. A. (2003). Continuing bonds and adjustment at 5 years after the death of a spo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1), 110-117.
- Field, N. P., Gao, B., & Paderna, P. A. (2005). Continuing Bonds in Bereavement: An attachment theory based perspective. *Death Studies, 29*, 277-299.
- Field, N. P., Nichols, C., Holen, A., & Horowitz, M. J. (1999). The relation of continuing attachment to adjustment in conjugal bereav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2), 212-218.
- Fraley, R. C. & Shaver, P. R. (1999). Loss and Bereavement: Attachment theory and recent controversies concerning "grief work" and the nature of de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735-759). New York: Guilford.
-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In J. Strachey (Ed. &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1914-1916). On the history of the psychoanalytic movement, papers on metapsychology*

- and other works* (pp. 237-258). London: The Hogarth Press.
- Gaines, R. (1997). Detachment and continuity. *Contemporary Psychoanalysis, 33*(4), 549-571.
- Hagman, G. (1995). Death of a selfobject: Toward a self psychology of the mourning process. In A. Goldberg(Ed.), *Progress in self psychology, Vol. 11. The impact of new ideas.* (pp. 189-205).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Hagman, G. (2001). Beyond deathtaxis: Toward a new psychoanalytic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mourning. In R. A. Neimeyer (Ed.),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pp. 13-3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rowitz, M. J., Siegel, B., Holen, A., Bonanno, G. A., Milbrath, C., & Stinson, C. H. (1997). Diagnostic criteria for complicated grief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7), 904-91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im, K. & Jacobs, S. (1991). Pathological grief and its relationship to other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4), 257-263.
- Klass, D., Silverman, P. R., & Nickman, S. L. (Eds.). (1996). *Continuing bonds: New understandings of grief.*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Klass, D. & Walter, T. (2001). Processes of grieving: How bonds are continued.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431-4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8).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bereavement. In M. S. Stroebe, R. O. Hansson, H. Schut, & W. Stroebe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 (pp. 87-1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eimeyer, R. A., Baldwin, S. A., & Gillies, J. (2006). Continuing bonds and reconstructing meaning: Mitigating complications in bereavement. *Death Studies, 30*, 715-738.
- Neimeyer, R. A. & Hogan, N. (2001). Quantitative or qualitative? Measurement issues in the study of grief.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89-11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rkes, C. M. (1993). Bereavement as a psychosocial transition: Processes of adaptation to change. In M. S. Stroebe, W. Stroebe, & R. O. Hansson (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91-10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s, C. M. (1998). *Recovery from bereavement (3rd ed.)*.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Parkes, C. M. & Prigerson, H. G. (2010). *Bereavement: Studies of grief in adult life (4th ed.)*. London: Penguin.
- Raphael, B. (1983). *The anatomy of bereavement*. New York: Basic Books.
- Rando, T. A. (1993). *Treatment of complicated grief*.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Root, B. L. & Exline, J. J. (2014). The role of continuing bonds in coping with grief: Overview and future directions. *Death Studies, 38*, 1-8.
- Rosenblatt, P. C. (2001).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on cultural differences in grief.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285-30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nders, C. M. (1989). *Grief: The mourning af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Schut, H. A. W., Stroebe, M. S., Boelen, P. A., & Zijerveld, A. M. (2006). Continuing relationships with the deceased: Disentangling bonds and grief. *Death Studies, 30*, 757-766.
- Shuchter, S. R. & Zisook, S. (1993). The course of normal grief. In M. S. Stroebe, W. Stroebe, & R. O. Hansson (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23-4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lverman, P. R., Nickman, S., & Worden, J. W. (1992). Detachment revisited: The child's reconstruction of a dead par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4), 494-503.
- Stroebe, M. S., Abakoumkin, G., Stroebe, W., & Schut, H. (2012). Continuing bonds in adjustment to bereavement: Impact of abrupt versus gradual separation. *Personal Relationships, 19*(2), 255-266.
- Stroebe, M. S. & Schut, H. (2005). To continue or relinquish bonds: A review of consequences for the bereaved. *Death Studies, 29*, 477-494.
- Stroebe, M., Schut, H., & Boerner, K. (2010). Continuing bonds in adaptation to bereavement: Towar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59-268.
- Volkan, V. D. (1981). *Linking objects and linking phenomena*.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Wortman, C. B. & Silver, R. C. (2001). The myths of coping with loss revisited.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405-42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orden, J. W. (1982).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New York: Springer.
- Worden, J. W. (2003).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3rd ed.)*. Hove, New York: Brunner-Routledge.

논문 투고일 : 2016. 03. 20

1차 심사일 : 2016. 03. 29

게재 확정일 : 2016. 05. 19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tinuing Bonds Scale

Kyeyang Kim

Jongwon Park

Wan-Suk G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tinuing Bonds Scale (K-CBS). In study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administered to 293 bereaved adults who had experienced the death of a loved one, and it revealed a single factor structure with 10 items that explained 52.59% of the total variance. The K-CBS showed good internal consistency with Cronbach's alpha of .92. In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a different sample of 200 bereaved adults indicated satisfactory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of all items. However, one item had a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less than .40, hence, this item was discarded, and 9 items remained for the final scale. The single factor model with 9 items displayed a good fit. The K-CBS had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grief symptoms, and weak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fter controlling for grief, however, the K-CBS was predictive of a decrease in depression. The K-CB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of the K-CBS were shown among groups based on the deceased's relation to the bereaved and expectedness of lo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CBS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to measure continuing bonds. Finally,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ntinuing bonds, bereavement, grief, reliability, validity